발행인 이연택 · 편집인 문병호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3년 (단기 4345년) 2월 25일 (월)

http://dongguk.or.kr

제228호

이연택 총동창회장 신년사

### 25만동문 참여와 결속이 모교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희망찬 2013년 새해를 맞아 25 만 동국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평 안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총동창회와 산하 지부(회) 들이 화합하고 동국사랑을 함께 하는 한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근래 모교는 대운동장과 수영장 을 서울시로부터 매입해 그 자리 에 친환경적 녹지공간과 강의동 등 최상의 캠퍼스를 꾸민다는 구 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 요 일간지 평가에서 순위가 상승 하는 등 괄목할만한 발전과 비상 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재학생들도 각종 국가고 시와 주요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 적을 내 옛 명성을 되찾고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동창회는 올해 '하나 되는 동 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 고 모든 동국대학교 출신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 니다. 동문의 참여와 결속이야말 로 동창회 발전은 물론 모교 발전 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교 재단은 이사진 의 구성이 건학이념 구현과 시대 의 요구를 조화롭게 할수 있는 개 6회 회보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방화, 자율화의 가치 보다는 다양 성이 억제 될 수 있는 편향성의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진취적인 발전 전략이나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창조적 에너지,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 제시에 등한시하지 않았나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혹 타성과 안일에 젖어 변화에 둔감한 나머 지 107년의 빛나는 전통을 알게모

르게 갉아먹은 것은 아닌지를 자 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일등 동국'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 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일등 인재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 에게 힘이 되고 언덕이 되고, 그 리고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는 가 운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

총동창회는 모교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게 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각 언론사 의 대학평가는 물론 취업률 향상,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해 모교측 과 꾸준히 소통하고 대화하고자 합니다.

동창회원 여러분이 기탁해주신 고귀한 장학금에 대해서도 감사 의 말씀 드립니다. 장학제도란 일 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 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바로 모교의 후 배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 부할 수 있는 길이며, 그들이 바 로 우리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주 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또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 총동창회관 건립을 위 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 다. 회관은 교통편의성, 접근성, 호환성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라 는 브랜드가치의 상징성을 감안 해 최적의 장소를 물색중입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들이 소식을 접하는 데 速報性에서 떨어질 뿐 만 아니라 동창회원의 정보공유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 동창회원 여러분이 모두 동창회 보 필자이자 기자라는 자세로 소 소한 정보라도 제공해 동참해주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 1

###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대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라"

교육과학기술부, 본회 질의에 회신 보내와

[회신 내용]

○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 임함을 알려드립니다.

#### ▲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일 본회에 보내온 공문 사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4일자 본 회에 보낸 회신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 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임원 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 회에서 선임함을 알려드린다"고 답변

본회는 지난 1월17일 교육과학기술 부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법인 동 국대학교 이사 선임과 관련, 조계종의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제4호의 규정 에 의하면 이사(비승려 포함)와 감사 는 종단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 관 제24조 ②항 내지 ③항에서는 승려 이사는 조계종단에서 복수 추천한 인 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비승 려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되 어 있다 △승려가 아닌 비승려 이사 선임과 관련, 조계종단의 종립학교 관

리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이 서로 상충 되어 있는 바,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 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라다"고 적 시했었다.

사립학교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동 국대 정관 24조 ③항은 "조계종 재적 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 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조계종의 종립학교법 7조 4항 은 "관리위원회는 이사와 감사 등 임 원후보(승가. 재가)를 선정하여 중앙 종회 동의를 얻어 동국대학교, 중앙승 가대학교, 중앙종무기관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 복수 추천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답변으로 모교 재단이사는 정관에 의거 "승려이사는 조계종단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기 여는 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취지나 대학의 공공성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 '재단이사 적법절차' 서명운동

異口同聲 "모교 발전위해 불교계 반성 있어야"

ユロピゼミシシロ 애ピリテ 회장님께 감사와 격이는 방수를보법 x x 등 때문에 창모망킨다고 모두 智机处分. 学习 笑气 此礼补有对 星以不多 

본회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지난 1월 29일 '모교 재단이사 선임 적법절차 촉구 및 정관 개정 반대 서명운동'참 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 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2월28일까지

지부(회) 출장, 사무처 방문, 우편, 팩 스, 이메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접수 한 뒤, 본회 입장을 종단과 재단에 제 출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서명 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단과 종단이 반성하고 변해야 모 교의 경쟁력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는 "종교 재단인 연세대는 기독 교계 추천 이사 수를 축소하고 있는 데, 모교는 반대로 불교계 목소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2월20일 현재 서명 접 수자는 1천2백여명으로 집계되었다.

### 청와대 민정수석 이정현 동문 (12면)

나로호 우주발사 조광래 동문 (13면)

# 승려 '종관위' - 재가자 '개추위'가 정관 명문 규정

### 재단이사 선임. 관행 내세운 편법 시도 "시대착오" 역풍 불러

모교 재단(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 사 1인 선임 문제가 논란의 불씨로 확 산되고 있다.

총동창회는 1월 24일 동창회 회의실 에서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최근 제기된 모교 재단 이사 선임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 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법 절차에 따 른 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와 함께 25만 전 동문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본회 상임위원회는 성명에서 "25만 동문의 염원은 모교 발전이며 이를 위해 동창회와 모교 재단, 학교당국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최근 모교 재단에서 법인 정관 규 정과 사학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 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하려 하는 행 위는 동국가족의 화합을 깨고 불필요 한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며 모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동국 가족 모두이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서 명으로 반대의 뜻을 모아 시정을 요 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모교 재단 정관은 "임원 정수를 이 사 13인(이사장 포함), 감사 3인으로 정하고 승려 이사 9명을 제외한 나머 지 이사 4인은 대학의 장(총장), 이교 도가 아닌 교육계 및 각계의 덕망 높 은 인사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

이는 비승려 이사 4인이 사립학교법 에 규정된 개방 이사라는 점을 인정

### 총동창회 '비상대책 소위원회' 구성 활동



▲ 모교 재단이사 선임관련 비상대책소위원회 회의

### 사학법 - 정관 혼선 바로 잡는 계기로 세계우수대학, 외부 전문가 영입 추세

하고 있는 셈인데 당연직으로 명시된 총장을 빼면 실제에선 외부에서 참여 하는 개방이사가 사학법이 정한 최소 인원인 이사정원의 4분의 1에 미달하 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은 2004년 이사정수를 늘 리는 정관 개정이 있은 뒤 2006년 개 정 사학법이 개방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명시하자 이사

구성의 전체 비율과 선출방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리하지 않고 개방이사 4인 규정만을 추가 삽입한데서 비롯 된 것이다.

그런데 모교 재단은 종관위 추천을 받아 선출해야할 승려 이사 2명을 개 방 이사 4명의 일원으로 이미 선출해 정관 규정을 어긴데 이어, 이번에 문 제가 된 재가이사 후임을 승려가 아 닌데도 종관위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나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종립학교이므로 종법을 따르는 것 이 맞고 또한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과 입장을 고집해 논 란이 커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연세 대를 비롯한 국내 다른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학교나 외국 유명 사립 대학의 경우, 설립자의 창학 정신만 계승하고 동창회를 비롯한 외부로부 터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사회 구성을 전환한지 오래여서 조계종단 의 행태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내외의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성과 대학 경영에 한계가 있는 승려이사의 정수 를 대폭 줄이고 대학 경영에 실질적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인사의 영입,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관 을 바꾸고 이사 선임 절차도 그런 취 지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동문들은 종관위 추천을 받지 않고 개방이사 절차를 거쳐 선출된 승려 이사 2명의 법적 자격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 께 재단과 종단이 이처럼 계속 구시 대적 관행과 논리를 강요한다면 결국 헙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다 양한 의견을 놓고 공론화 작업이 진 행되고 있다.

### 이사 선임ㆍ정관 문제 왜 불거졌나 "이사 선임안 투표 부결"-"정관 개정안 보류"상태

모교 재단의 결원 이사 1명 충원 문제가 이사회 밖으로 까지 확산된 직접 계기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 서 종관위 추천 재가이사 선임 안 건을 처리, 강행 하려는 데서 비롯

또 이사회는 비승려 이사도 종단 종관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까지 만들어 재가이사 후보 선출 안건과 함께 상정해 일괄처리 하려 해 내외의 거센 반발에 부딪 쳤다.

### 이사회 구성 및 임원선출 규정

모교 재단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는 승려 이사 9인과 비승려 이사 4 인, 감사 3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 된다.

2006년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설립자 등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 사 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려 계산)은 의무적으로 개방 이 사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 면서 모교 재단도 4명의 개방이사 다고 생각 했는지 어쨌든 승려 이

를 선임해 왔다.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개 추위)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 선임해야 한다.

사회법과 조계종단내의 종법이 서로 달라 모교 재단은 승려 이사 의 경우 조계종단의 종관위 추천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선임하고 있 고, 이사가 스님이 아닌 경우에는 개추위를 통해 주로 추천이 되고 선임이 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

### 정관 무시한 이사 선임이 문제

이번 사태는 모교 재단이 승려 이사를 비승려 이사인 개방 이사 정원으로 선임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실제 2011년 2인의 스님들 이 개방 이사로 선임됐다. 종단의 원로급 승려가 종단의 입법기관인 종회의 의원스님으로 구성된 종관 위 추천을 거치는 것이 격이 안맞

사를 개추위를 통해 선임해 승려 이사는 모두 종관위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모교 재단측은 이에 대해 개방 이사를 비승려로만 한다는 명문 규 정이 없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 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승 려이사는 모두 종관위 추천을 거치 도록 한 명문 규정이 있어 이 설명 은 상식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라 는 지적이다.

2012년 11월 30일 모교 재단 제 274회 이사회에서는 허천택 이사 후임 선임안과 정관개정안 두 안건 이 동시 상정 되었으나 (조계종단 이 추천한 인사의) 이사 선임 안은 부결됐고 모교 재단 정관 변경도 4 시간의 격론 끝에 다음 회기로 일 단 넘겨졌다.

### 정관과 사학법에 기초해야

따지고 보면 이번 사태는 모교 재단과 조계종단의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탁상행정에 근본 원인이 있

다.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와 규정 에 맞게 모교 재단 정관을 보완하 고 이사회에서 일반의 상식에 부합 하는 논의를 통해 구성원간의 합의 로 해결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립학교법은 개방 이사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모교 처럼 종교계 이사가 전체 이사의 3 분의 2를 넘는 구성은 명문대학 어 느 학교에도 없다.

창학 정신을 전승해 갈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나면, 나머지는 최 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 종단이 할 일이라 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세계경쟁이 현실이 된 대학의 현 상황을 직시한다면 지금 같은 모교 의 재단 이사회 구성과 운영은 더 이상 안된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우 리 25만 동국인들은 한국 불교 2천 년 역사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세계 최고명문 동국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지구촌의 명예를 얻고 한국사회의 존경을 받는 주체가 되는 길을 선 택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촉구한

# 대학성장은 등록금과 동문 발전기금이 큰 몫

### 거시적 · 세계적 안목에서 동국대 활로 크게 열려 있어

### 다른 사립대 사회 명망가 주축

불교재단인 동국대 운영의 실체인 재단이사진은 13명 중 9명이 스님이 고, 4명이 일반인이다.

기독교재단인 연세대의 경우 9명의 이사 중 교계(목사)이사는 단 2명뿐이며, 대신 전 부총리, 교육부장관, 언론사회장, 대학총장 출신 등사회적 명망가 및 유력 기업체장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가톨릭재단인 서강대는 12명의 이사 중 교계(신부)이사는 4명, 기독교재단인 이화여대는 이사진이 사회적 명망가로구성돼 있다.

이처럼 종교사학들이 종교인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Delta$ 재단은 정관이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주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로 활동범위를 축소하고 대신  $\Delta$ 급변하는국내외 변화에서 대학이 지향해야할 방향과 전략적 대안의 폭을 확대하고  $\Delta$ 외부 비판으로부터 학교를보호하거나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한차원의 대 정부, 대 사회 정보망 확충의 적극적 관리시스템 활용  $\Delta$ 인적 물적 정보적 자원을 활발하게 끌어와 학교 발전의 동력으로 쓰기 위해 정계 재계 학계의 명망있는 인사

를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다.

#### 재단 전입금은 소극적 기여

동국대는 스님이 재단이사로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지만 종단 및 재단의 투자는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하여 오고 있음을 볼 때 종단 및 재단 투자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또 스님들의 이사진 참여는 전문성과 비전의 결여로 대학운영의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조직이 배타적・폐쇄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스님이라고 해서 세속의 일을 모 른다고 할 수 없지만 행정이나 기업 분야에서 수십년간 활약하는 전문가 집단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

#### 모교의 발전 가능성

최근의 사회적 트렌드를 살펴볼때, 불교재단이 또다른 의미의 막대한 자원이 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민족동국'이라는 말도 그저 나오는 수사가 아니라 불교라는 문화적 전통과 자주라는 전통종교의 적자란 점에서 그러하다. 요즘 사회환경의 일환으로 점증하고 있는

'Slow City'가 불교적 멘탈에 있는만 큼 거시적·세계적 안목에서 불교종 립대학인 동국대의 활로는 크게 열 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확대하면 3대 사학 으로 진입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 다. △종단 △재단 △학교간의 공동 목표 공유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건학이념의 창조적 구현 △학교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 한 확실한 역할 분담 △급부상한 일 부 족벌사학에 못지않은 책임의식과 함께 중장기 비전 수립과 과감한 투 자  $\Delta$ 정  $\cdot$  관계 대표, 기업인, 전직 총장, 언론인, 동문회 인사 등 각계 명망가의 이사참여 비율을 높이는 개방성 강화 △스님 이사의 경우 건 학이념 구현에 기여할 덕망과 학식 있는 승려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세계적 개방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명확히 하는 이사진 구성이 이루어 지면 학교발전 동력은 크게 살아날 것이다.

### 동문은 재정·봉사의 기부자

현재의 재단 구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재단 운영에 있어서 과정의 투명성, 절차에 문제가 없다 고 하더라도 결과로서 대답을 해주 어야 한다. 재단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교는 날로 후발 대학에 밀리고 근래엔 존재감도 없는 모모 대학에도 밀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모교의 운영과 성장의 토대는 등록금과 동문들의 발전기금이 큰 역할을 해온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문사회는 애교심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교의 평판이동문의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고, 그래서 모교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숙명적으로 떠안고 사는 위치다. 자기성취를 이룬 많은 동문들은 시간의기부, 재정의 기부, 봉사의 기부라는 애교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모두가 가장 큰 학교발전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triangle$ 종단  $\triangle$ 재단  $\triangle$ 재학생  $\triangle$ 동문이 머리를 맞대고 명문사학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계 홍 (65/69국문)

동아일보 문화부차장, 문화 일보 사회부장, 서울신문 수 석부국장 역임

### 종립학교관리위, 본회에 2차례 입장 통보

# 개정 반대 서명 삼억~ 1 이 나다. 1. 또한 본 위원회는 제87차 회의(2013년 2월 14일)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학교법 2. 또한 본 위원회는 제87차 회의(2013년 2월 14일)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학교법 2. 또한 본 위원회는 제87차 회의(2013년 2월 14일)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위신을 심 2. 원선임 관여와 정관개정반대 서명 독려 행위는 종단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대하 촉구하 3. 이에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에 지난 공문의 요구사항 이행을 제차 촉구하 3. 이에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에 지난 공문의 요구사항 이행을 제차 촉구하 3. 이에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 수 사항 1.) "동국대학교의 이사 선임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중앙종회'의 동의 단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음. 이는 총무원과 총무원장스님이 법적으로 판여할 수 없는 구조인 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 2.) 이를 기존의 공문을 발송한 곳에 같은 방법으로 알릴 것 3.)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무시하고, 총무원 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할 것 4.)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핵론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종립학교관리위 할 것. 끝.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3일, 본회의 '재단임원선임 적법 절차 촉구 및 정관개정 반대 서명 참여의 건에 대한 입장 통보의 건'이라는 공문(대불종립 제2013-2호)을 보내왔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장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 공문에서 1) "동국대학교 이사 선임은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의 추천과 '중앙 총회'의 동의를 거쳐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있음. 이는 총무원과 총무원장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임"이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것. 2)이를 기존의 공문을 발송한 곳에 같은 방법으로 알릴 것. 3)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무시하고, 총무원과 종단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할 것. 4)위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종립학교롼리위원회에 회신할 것 등을요구해왔다.

이어 지난 2월20일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임원선임 관여 및 정관개

정 반대서명에 통보의 건'이라는 공 문(대불종립 제2013-12호)을 추가로 보내왔다. 추가 공문에 의하면 본 위 원회는 제87차 회의(2013년 2월14일) 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학교법 인 동국대학교 임원 선임 관여와 정 관개정 반대 서명 독려 행위는 종단 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심 대히 손상시킵과 동시에 월권 행위이 므로 이에 대하여 참회할 것을 요청 하도록 결의하였다"는 것과 "동국대 학교 총동창회에 지난 공문(1차)의 요 구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하오니 답변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원경

### 연세대-동국대 '종교재단 이사 선출' 정관개정 상반

### 파이낸셜 뉴스 2월 13일 기사 발췌

종교재단의 이사 선출권한을 두고 연세대는 축소, 동국대는 강화를 위한 서로 다른 정관 개정을 단행해 논란 이 되고 있다. 2월12일 대학가에 따르 면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와 불교계 대학인 동국대가 종교계 출신 이사 선출과 관련된 정관 개정을 두 고 똑같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연세대는 기독교 색깔을 지우는 방향 으로 이사 선출 정관 개정이 이뤄진 반면 동국대는 불교계 색깔을 더 강 화하는 방향으로 상반된 정관 개정이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연세대 재단의 정관 개정에 대해 기독교계 4 개 종단이 반발하는 반면 동국대는 조계종 종단의 이사 선임권 강화방식 의 정관 개정에 총동문회가 반발하고

연세대 재단 이사회는 기독교계 추천 이사 수를 축소하려는 정관 개정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적 소송까지최근 이겼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 (부장판사 김하늘)는 대한예수교장로 회 통합(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 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기독교 4개 교단이 학교법인 연세대 를 상대로 제기한 기독교이사 파송 정관 개정과 방우영 이사장 연임 결 의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연세대 재단 이사회는 지난 2011년 10월 추경 이사회에서 '4개 기독교 종단에서 이사 1명씩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정관규정을 '기독교계에서 2명을 추천받을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한 뒤 기독교계와 소송전 등의 충돌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개방형이사' 문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키로 해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정갑영 연세대 총장 은 정관 개정 논란에 대해 "재단 이사 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직접 관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략〉

연세대의 경우 언더우드 선교사가학교를 설립했지만 후손들은 학교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동문이나 언론사 출신 등 사회 명망가들이 재단을 맡아와 미션스쿨 이미지가계속 줄어들었다. 반면 동국대는 지난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이 30개 본산과 2개 특별기부사찰의 도움으로 설립한 명진학교에서 출발했다. 조계종은 이후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종단 출신 이사 수를 늘리는 등 불교계 대표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왔다. 〈김경수 기자〉

# 3월21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

### 금년 첫 상임위원회서 상정안건 등 심의



▲ 본회 첫상임위원회가 지난 1월 24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회는 오는 3월21일(목) 오후 6시 30분 모교 중강당에서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의 안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회 2013년 제1차 상임 위원회가 지난 1월24일 오전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려 현안문제 보고, 안건 심의 등을 마쳤다. 이날 심의 안건으로는 △2012년 결산안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75차 정기이사회 및 제32차 정기총회 개최안 △재단(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변경안 △직능단체 지부 창립계획안등이 상정되어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

되었다.

2012년 결산안에 따르면 차기이월금 은 1억6천4백19만7천776원으로 2011년 1억6천1백28만5천159원 보다 3백여만 원 늘어났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조 직정비 및 확대 △재정확충 다변화 △장학사업 내실화 △총동창회관 건 립 추진 △소통과 상생문화 확산에 바탕한 동창회보 년 6회 발행 등의 세 부계획들이 마련됐다. 예산안은 전년 도 결산액을 중심으로 실행예산을 편 성했다.

모교 재단이사 선임 관련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안은 상임위원회가 그 역 할을 대신하기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 안을 추인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변경 안은 현재 상임부회장 전체가 참여하 는 상임위원회를 '상임부회장 전체회 의'와 상임부회장 일부만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로 2원화하여 업무의 효 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규 직능단체로는 경제인회와 체육

인회 구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기나 방법은 사무처에서 세부계획 을 세워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날 보고사항으로는 2013년도 본회 주요 업무일정과 서울교육청의 동국 장학회 2012년 현지 실태조사 처분 결 과 등이 있었다.

2013년도 주요업무내용은 △4월=1 학기 장학금수여식 △5월=제7회 동국 인 골프대회,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5월25일), 동국인경주체육대회(경주) △6월=동국경제인회 발기창립총회 △ 7월=동국체육인회 구성 △9월=2학기 장학금 수여식, 단위조직 회장단회의, 제3회 회장배 골프대회 △10월=동국 가족걷기대회 △12월=2013동국인의 밤(12월11일) 등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교육청 실태조사에서는  $\triangle$ 기부 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 승인을 받을 것  $\triangle$ 동창회 사업을 장학회 회계에서 세입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triangle$ 재단의 세부운영규정 재정 등에 대해각각 주의, 경고,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 동국장학회 신임이사에 이인정 · 김환배 동문





이인정 동문 김환배 동문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이연 · △동창회 택) 이사로 이인정(64/70상학, (주)태 인 대표이사)동문과 김환배(68/72화

이번 이사 선임안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공, 성화실업(주) 대표이사)동문이 지

난해 11월 29일자로 새로 취임했다.

이로써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는 이사 15명, 감사2명으로 임원 정족수를 모 두 채웠다.

### CMS 1인 1구좌 갖기운동 전개

### 일정금액 자동이체 통해 안정적 재정 확보 기반 마련

본회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총동창회 CMS 1구좌 갖기운동'이 본격 실시된다.

CMS 제도는 각종 후원금 모금이 나 장학 시업 등에 대표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통장 자동이체 서비스' 로서 이미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CMS는 개인은 매월 일정 금 액씩 소규모로 뜻있는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단체는 많은 동참자로부터 십시일반 현금 지원을 받아 계획성있는 사업 진행 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회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CMS 제도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으나 현재 참여도는 아주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각 단위조직별로 CMS 가입운동을 전개,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본회는  $\Delta$ 후배 장학기금  $\Delta$ 동창회 관 건립기금  $\Delta$ 평생회비 납부에 CMS 참여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 이며, 아울러 임원회비 분납을 원하는 임원들도 CMS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 CMS 참여는 총동창회 사무처 02)733-3991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국장학회 이사회 개최

### 예 · 결산-세부 운영규정안 심의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이연 택) 정기이사회가 오는 2월27일 열려 △2012년도 결산안 △2013년도 예산안 △재단의 세부운영 규정 제정안 △ 2013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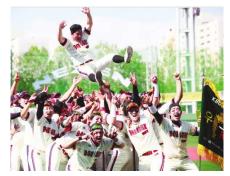
2012년도 결산안은 지난 2월5일 감사를 통해 사업실적 총괄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각 부속 명세서상의 수입과 지출항목,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2012년도 결산 총 수입은 6억6천7백43만189원, 지출은 5억

7천7백49만2천927원으로 차기 이월금 은 8천9백93만7천262원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중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액은 4억1천9백만원이었다.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운 영 규정 제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직원급여 지급 규정'과 '학술연구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 지적사항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장학금 지급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동국체육인회'구성 가시화 각 운동부 대표로 곧 준비위원회 구성



▲ 지난해 대학야구대회 우승 헹가래

동국체육인회(가칭)가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체육인회 결성은 지난 2010년, 대한체육회장을 지낸 이연택 총동창회장 취임 당시부터 동문 체육인사 일각에서 거론되어온 사안이다. 특히 2011~2012년 모교 야구부, 축구부, 농구부 등이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체육인회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에 총동창회 차원에서 체육인회를 결성

하기로 지난 1월24일 열린 상임위원 회에서 의결되었다.

총동창회 사무처 안에 따르면 체육 인회 결성 준비는 1차로 모교 개교이 래 각 운동부 출신 동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어 각 운동부별로 대표 1 인씩을 뽑아 발기인회을 구성하게 된 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나 기관에 종 사했던 동문들도 찾아내 범 체육계 인사로 조직을 결성한다는 구상이다.

모교 운동부로는 현존하는 야구부, 축구부, 농구부 외에 개인종목으로 빙 상, 스키, 태권도, 레슬링, 복싱, 조정, 사격, 골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레슬링과 복싱 등은 올림 픽 금메달까지 따내 동국대 운동부의 명예를 크게 떨친 바 있다.

체육인회 결성은 본회 체육담당 상 임부회장 중심으로 금명간 세부 일정 을 세우고 상반기 중 결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동국경제인회' 만든다

### 상반기 창립 목표로 데이터 작업 진행

본회는 금년도 조직강화사업의 일환 으로 올 상반기 중에 '동국경제인회' (가칭)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월24일 열린 금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 었다.

경제인회 결성은 기업인 상호간 정 보교환과 상호 협력, 후배 취업 보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본회는 지난해 11월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임원을 맡고 있는 동문 8천여명을 1차로 추출 했다. 이어 12월에는 '2013 매경 년 감'을 통해 5백여명의 임원을 발굴해 냈다.

본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기업체 규모별, 지역별, 공기업 및 사기업체, 임원 직급별 등의 분류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들 분류 작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6월까지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경제인회가 출범하면 본회 최대 단위조직으로 사무처에서 직접 관리하여 친목행사, 경기 전망과 기업생존전략 등의 세미나, 모교와 연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총학생회 간부 본회 방문



▲ 지난해 11월8일 총학생회 회장단이 본회를 방문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과 재학생간부 간 담회가 지난해 11월8일 본회 회의실 에서 있었다. 총동창회장 예방형식으 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는 제44대 총 학생회 최장훈(정외 4년) 회장, 조승 연(윤리문화 4년) 부총학생회장, 전미 정(반도체 3년) 총여학생회장과 단과 대 학생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사무실 벽면에 부착된 역대 총동창회 장들을 소개한뒤 "동국 발전을 위해 동창회는 동창회대로, 총학생회는 총 학생회대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해나가자"고 격려했다.

되어어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 간부들은 일간지의 모교 평가 순위와 관련 "총학생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을 총동창회에서 먼저 체계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하고 여론화시켜 주어 앞으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18일에는 제45대 총학 생회 이준권(불교 4년) 부총학생회장 과 이희정(역사교육 4년) 집행위원장 이 신임 인사차 본회를 방문했다.

#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동국 사랑' 과시

### 신년회 및 송년회 현장

#### 불교학과 회장 홍파스님 연임



불교학과동창회는 지난해 12월7 일 모교 상록원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을 갖고 현 회장 홍파스 남(63/67,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 장)을 연임시켰다.

회장 홍파스님은 "가장 오래된 ◆홍파스님 학과동창회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회원들의 적극 참여로 자긍심을 높여 나가 자"고 인사했다.

이날 모임은 하춘생(83/90, 동방불교대 교학처장) 동문 사회로 '불교학과 106년' 영상물 감상에 이어 예결산안과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재 학생 풍물패 공연으로 송년 분위기를 북돋았다.

### 행정학과 회장에 박동열 동문



행정학과동문회(회장=심익섭, 72/79, 모교 교수) 정기총회가 지난해 11월29일 모교 상록원에서 열려신임 회장에 박동열(73/78, 세무법인 호람 회장)동문을 선출했다.

**최 시설 보** 박근호(62/70, 모교 명예교수) ◆**박동열 회장** 동문 등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

♥ 다음을 되장 당군 등 회원 30여명이 합식한 이 날 모임에서 신임 박 회장은 "행정학과의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모범동창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 다"고 인사했다.

행정학과는 이날 새해 역점사업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1학기 3명, 2학기 4명에게 학과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 했다.

### 산업공학과 기금 조성 결의

산업시스템공학과동창회(회장=김도영, 74/78공경, CDS테크 대표)는 지난해 11월30일 대림정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홍성조(78/82공경, 모교 산업시스템 공학과 교수)동문을 통해 모교의 소식을 들었으며, 이어 학과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위에 연락 되 는 동문부터 발전기금 조성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 기로 했다.

### 토목공학과 장학금 전달



토목공학과동문회(회장=최동지, 75/82토목, 천마산터널(주) 대표이사)는 지난 1월18일 서초로얄프라자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한상묵(77/81토목, 구미공대토목과 교수)동문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토목공학과동문회 장학생 3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장학생 1명, 도화엔지니어링 장학 생 1명 등 5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 달하고 격려했다.

### 식품공학과 정기총회 열려

식품공학과동창회(회장=김종승, 74/78식공,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는 지난해 11월2일 동 문과 후배 재학생,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모교 상록원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경과 및 감사보고가 있은 뒤 2012년도 결산(안)과 회칙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 건축학과 송년의 밤

건축학과동창회(회장=유종칠, 73/77건축, 리아건설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19일 그랜드앰배서더에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 불교대학원 회장 진우스님 취임



불교대학원동창회(회장=진우스님, 95/97, 천태정사)는 지난 1월23일 세종호텔에서 2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총동창회장이·취임식'을 가졌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 결산(안),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 인준(안)이 의결되었다.

2부에서는 신임회장에 선출된 진우스님과 전임 회장 문황진(92/93불원, (주)MAX해인산업 대표이 사 회장)동문의 이ㆍ취임식이 진행됐다.

### 행정대학원 회장 이 · 취임식



행정대학원동문회(회장=김오현, 64기)는 지난 1월23일 모교 상록원에서 '2013년 신년교례회 및 동문회장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오복섭(81기) 제22대회장은 "예산확보를 위한 문화사업 등의

◆오복섭 회장 수익사업 전개, 홈페이지 개설, 다 목적 공간 확보, 현실에 맞는 정관 개정과 효율적인 집행부 구성 등을 통해 동문회의 내실과 위상을 공 고히 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대신했다.

### 경영전문대학원 송년의 밤 대성황



경영전문대학원동창회(회장=최종윤, 83/85경원, 우리종합건설(주) 회장)는 지난해 12월10일 그랜드 앰배서더에서 4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 년의 밤을 열고 송구영신의 결의를 다졌다.

1부 행사에서는 공로패와 임원패 수여, 회장 인사말과 내빈 축사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동문들이 참여한 여 흥과 경품추첨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이어갔다.

### 교육대학원 장학금 1천만원 전달



교육대학원동창회(회장=성해스님, 88/90, 삼각사주지) 송년 행사가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2일 어린이대공원 근처 해피웨딩홀에서 열려 회원간 친목과 모교 발전에 대한 열의를결집했다.

이날 송년 행사는 재학생 후배장학금으로 200만원 1명, 150만원 2명, 100만원 5명 등 8명에게 총 1천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뒤 레크레이션과 경품 추첨 등으로 동문애를 다졌다.

### 언론정보대학원 신년하례식

동국언론인상에 방준식 스포츠조선 발행인



언론정보대학원동창회(회장=박광성, 09/11, 한국 방송예술진흥원 총장)의 '신년하례식 및 국회의원 노웅래동문 초청 강연회'가 지난 1월28일 앰배서더 호텔 샤르도네에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웅래(99/05) 동문은 특강에서 '내가 본 12.19 대통령선거 야당 패배 원인'을 주제로 한국정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차분하게 분석, 설명했다.

동국언론인상 수상자로는 방준식(99/10, 스포츠조 선 발행인)동문을 시상했으며, 오만식 동문 등 부회 장 등에 대한 위촉패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의원 노웅래 정호준 동문과 서영교 겸임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박광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3월부터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10시 '남산 둘레길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과학대학원 송년의 밤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회장=김석만, 89/90, (주)신한종합건설회장)는 지난해 12월21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3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열었다.

이종석(00/01, 승지토건(주) 대표이사)동문 사회로 진행된 1부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도 감사 및 결산 승 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부는 여흥과 만찬을 즐기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의 힘찬 전 진을 결의했다.

### 여자총동창회 송년의 밤

여자총동창회(회장=김영순, 65/69화학, 모교 명예 교수)는 지난해 12월7일 모교 학술문화관 지하 마케도라운지에서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열었다.

이날 눈보라를 무릅쓰고 동국사랑의 열정으로 참 석한 동문들은 지난 한 해 동안의 행사와 활동을 회고하고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충미(81/85교육)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조용하면서 의미있는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 각자가 준비해온 선물들을 교환했으며, 김영순 회장이 손수 담근 전통주로 건배 제의와 담소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석자들에게는 김영순 회장이 제작한 여자동창 회 포켓수첩이 배포되었다.

# "우리 東大 남산 코끼리…" 응원가 전국 메아리

### 직할 경주동창회 김종형 회장 취임식



직할 경주동창회는 지난 1월19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문과 내외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 및 신년의 밥'을 열었다.

박병훈(85/91일문, 경북도의회 의원) 전임회장의 이임사에 이어, 김종형(81/88경영, 한우리C&D 대표)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경주캠퍼스 34년간 4만6천명의 동문이 배출되었고 경주에만 7천여명이살고 있다. 지역의 진정한 리더로서 동국대가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는데는 동문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 박용재 총동창회 총무담 당 부회장 겸 사무총장,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정석호 경주시의장 등은 축사를 했다.

이날 자랑스런 동국인상은 공원식(98/00행정) 경 북관광공사사장, 정석호(00/05법학) 경주시의장, 진 병길(84/90국사) 신라문화원장이 수상했으며 박병 훈 전임회장, 윤종원(81/87한의) 호성한의원장, 이 규영(86/93경영) 대양통상 대표는 감사패를 받았다. 신임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Delta$ 회장=김종형  $\Delta$ 수석부회장=이상록(83무역)  $\Delta$  상임부회장=김맹희(79미술) 이상근(83경제) 권혁대 (84관경) 김홍섭(84국문) 이규영(95관광)  $\Delta$ 감사= 박재수(94관경) 김병욱(95관경)  $\Delta$ 사무총장=조덕행 (84조경)  $\Delta$ 사무처장=윤광태(87관경)  $\Delta$ 사무국장=백재욱(92법학)

### ROTC 정기총회 겸 제20기 임관 30주년



ROTC동문회(회장=박대신, 69/73국문, (주)동우 대표이사) 정기총회가 지난해 11월22일 리베라호텔 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제19대 박대신(69/73국문) 회장과 제20대 김영환(72/76무역) 회장 이 ·취임식 및 20기 임관 30주년기념 축하행사를 겸한 이날 총회에는 역대 회장을비롯해 선후배 동문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이학균(77/81사회교육, 꽃나들이 대표)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12년 사업결과 및업무보고, 결산 및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제20대 회장 및 감사 인준,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임원 및 기별 년회비(안)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킨데이어 '울트라 112 장학기금'모금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청우 최재구 회장 추모사업회 임시총회

청우최재구회장 추모사업회(회장=류주형, 53/57 농학, 은민 S&D 회장) 추모사업회가 지난해 11월29일 인사동 은정집에서 열려 '제10회 동국청우상' 수상자로 박종윤(56/59경제, 총동창회 고문) 동문을 선정했다.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추모사업 의 일환으로 '청우 추모집'제작과, 2013년 5월중 경남 고성에 있는 묘소를 참배하기로 결의했다.

동국청우상은 총동창회 7-10대 회장을 지낸 최재

구(48/52국문) 동문의 동국사랑 정신을 기려 제정한 상으로 문태식 박현성 유현목 김진선 박영석 송석구 문정희 이두철 김경재 동문 등이 차례로 수상했다.

#### 북미주 총동창회장에 김경재 동문 취임



동국대학교 북미주총동문회 2013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8일 LA에 있는 Coyote Hills GC 뱅큇홀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김경제(65/69 농학, Coyote Hills GC 회장)동문이 취 임했다. 또 김상목(66/70통계) 전임

◆김경재 회장 회장에게 공로패, 구본삼(78/82전산) 김세훈(72/76전산) 김치열(77/84전기) 김흥룡(79/86토 목) 최종기(67/71농학)동문에게는 각각 지역동문회 발 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가 전달됐다.

행사에는 한국과 LA를 비롯한 북미주 워싱턴DC, 뉴욕, 시애틀, 시카고, 덴버,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과 카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온 동문 및 부인 120명이 참석했다.

신·구 회장 취·이임식에 앞서 '한국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와 '북미주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열려 대회 챔피언은 오창환(63/67경영, 74타)동문, 메달리 스트는 잔 리(72타)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 美 남가주 동문회장에 나종성 동문



남가주동문회 2012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지난해 12월2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아로마 스파 & 스포츠센터에서 열려 새 회장에 나종성(72/76미술, 前 미주중 앙일보 국장)동문을 선출했다.

전임 회장 김흥용(79/86토목, 코스모스식품 대표)동 문은 이번에 신설된 남가주동문회 당연직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모임에는 48학번 조왕기(모교 명예교수)동문을 비롯 52학번 김봉구 임재태 등 원로동문과 08학번까지 선후배 6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장정헌 김경제 이 상엽 동문 등은 협찬금을, 원영두 이성하 안창해 동문 등은 행운상품을 내놓았다.

한편 모임은 중앙일보, 한국일보, 헤럴드경제와 LA18 TV, KBS TV등의 광고를 통해 홍보 되었다.

### ◆2013년 임원 명단

△회장=나종성 △부회장=박영규(80정치) 안유희 (82국문) 이혜연(85물리) △사무국장=김근석(83전 산) △감사=함주용(73경제) 양기수(74식공)

### 수원지부 회장에 박봉준 동문



수원시동창회(회장=김용구, 70/74농경) 신년회 및 정기총회가 지난 1월9일 오후 6시 캐슬 호텔에서 50 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박봉준(77/85경제)동문을 추대 했다.

이날 김용구 전임 회장에게는 감사패와 부상이 전달되었으며, 임원 선출과 예·결산에 이어 여흥으 로 회원상호간 친목과 힘찬 새출발을 다짐했다.

#### 용인시 회장에 양승룡 동문



용인시동창회(회장=우태주, 66/70 경영, (주)라인택 대표이사)는 지난 1월31일 용인 수지 크라운뷔페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양승용(03/07국제통상,

◆양승룡 회장 모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동 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함께 활동하는 용인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광주지부 송년의 밤 가져

광주광역시동문회(회장=류수택, 60/67경영) 송년 의 밤 행사가 지난해 12월12일 시내 금수장호텔에 서 열렸다.

이정우(49전문, 법무사) 이상진(57/60법학, 광주불교방송 사장) 김기중(59/63상학, 광주대성학원장) 동문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각자 1년간 대소사를 회고하는 한편, "내년에는 개인이나 모임 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자"면서 여흥을 즐겼다.

### 강남지부 회장에 이학균 동문



지난 1월17일 열린 서울 강남지부 월례회에서 이학군(77/81사회교육) 동문이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강남지부는 지난해 12월20일 칠갑청국장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행사를 갖고 차기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전임 회장 문준수(69/74인철) 동문에게는 공로 패를 전달했다.

### 동대신문 동인회장에 최은영 동문



동대신문사동인회(회장=한만수, 77/84국문, 모교 교수)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지난해 12월6일 충무로역 근처 아리랑가든에서 동문 및 재학생 기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은영 회장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최은영(79/83국교, 미디어초이스 대표)동문을 선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대신문 기자 시절 신문을 제 작하며 겪은 필화사건 등을 서로 소개하며 동대신 문이 정론으로 동국발전의 견인차이자 감시자로 역 할해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했다.

### 동국아너스골프 회장에 오정석 동문



동국아너스골프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 모임이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26일 코리아CC에 서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에 오 정석(72/79농학, 동원주류판매 대표

◆오정석 회장 이사)동문을 선출하고 지난 3년간 모임을 이끌어온 초대 회장 서승삼(71/78경제, 녹십 자 MS 대표이사)동문과 인수인계식을 가졌다.

### 중앙일보 대학평가 13위

지난해 '2012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모교는 역대 최고 순위인 13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 순위 상승으로 모교는 20위권내 대학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순위 상승을 가져왔다. 모교는 핵심 지표인 교수 연구(21위) 및국제화(3위)에서 개선된 평가를 받았

고, 2007년 이후 하락을 거듭하던 평판도(19위)는 반등했다.

경주캠퍼스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 42위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 체 지방대학 중 18위의 성적으로 지난 해 23위에서 5계단 올랐으며 지방 사 립대학 중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 통계학과 교수논문 수도권 2위 SCI논문 작성 편수 측정 평가

모교 통계학과가 '전임교수 1인당 SCI논문 작성편수' 측정 평가에서 서 울, 수도권 주요 대학 중 서울대에 이 어 2위에 올랐다.

이는 중앙일보가 작년(2012년) 한해 동안 평가한 결과로 전임교수 1인당 0.7편을 작성했다. 평가 대상 논문이 SCI(세계저명논문)라는 점과 보통 3~4명의 교수가 공저로 참여하는 것 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은 통계학과는 그동안 많 은 전문인력을 배출해왔다.

통계청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 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박상래 동 문, 78학번), 대한손해보험협회 부회 장(장상용 동문, 74학번), 롯데손해보 험 전 대표이사(김창재 동문, 77학번) 도 통계학과 출신이다.

작년에는 보험계리사 시험에서 통계 학과 재학생 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국가고객만족도 사립대 부문 '4위'

한국생산성본부가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 서 모교는 사립대 부문 4위에 올랐다. 지난해 7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결과다.

특히 조사대상 14개 사립대 중 유일하게 최근 4년간 점수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처음참가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종합

순위가  $12위 \rightarrow 8위 \rightarrow 7위 \rightarrow 4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객인지가치 부 문이 전년대비 18.4%p, 고객 충성도가 전년대비 11.3%p 오르는 등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수준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경영대학 TOP5' 비전 선포

경영대학 비전선포식 및 후원의 밤행사가 지난해 11월15일(목)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려 '2020년 경영대학 TOP 5' 달성을 선언했다.

경영대학(학장=유석천)과 경영학과 동창회(회장=김철순, 69/76)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 대학원 생, 교수,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 하여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경영대학 발전을 위해 1백억원의 장학기금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한편 당일 행사에서는 총 12억원의 장학기금을 모금, 또는 약정받았다.

### 공과대학 장학기금 3억7천만원 모금

'공과대학 동문 모교방문의 날'행사가 지난해 11월16일(금) 모교 상록원에서 2백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학교 홍보동영상 상영, 공과대학 비전설명, 학과별 멘토링 협 약식, 주요 후원자 소개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과대학 발전기금으로 소컴퓨터공학과동창회 1억원 소건 설환경공학과동창회 5천만원 소산업 시스템공학과동창회 5천만원 소건축 공학부동창회 4천만원 소화공생물공학과동창회4천만원 소석정미래재단에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장학기금 3천만원 소흥익표 삼공종합건설 대표이사(건축공학 73) 2천5백만원, 소산

학협력기업 (주)컨텐츠비젼 1천만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일동 7백만 원 등 총 3억7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모 았다.

### **이경 · 신영섭 교수** 각각 60억 · 17억 연구비

모교 이경(약학과)교수가 지난해 11 월2일 '기초 연계 후보 물질 발굴사 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연구 재단으로부터 1년에 10억씩 총 6년 동 안 60억을 지원받는다.

학과동창회4천만원  $\Delta$ 석정미래재단에 신영섭(연극학부) 교수는 순천만국 서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장학기금 3 제정원박람회 주제공연 제작을 맡아 천만원  $\Delta$ 홍익표 삼공종합건설 대표 조직위원회로부터 1년간 17억원을 지 이사(건축공학 73) 2천5백만원,  $\Delta$ 산 원받는다.



### 서울 · 경주캠퍼스 졸업식

### 신입 동문회원 4천1백명 탄생

#### 서울캠퍼스 2,532명 학위 받아

서울캠퍼스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지 난 2월15일 대학본관 중강당에서 거 행돼 학사 1,841명, 석사 595명, 박사 96명 등 총 2.532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부졸업생 대표들은 미화, 경비, 주차 업무를 맡아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준 분들에게 직접 준비한작은 선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배우 박민영 (닥터 진, 성균관스캔들, 영광의 재인 등 주연)동문이 연극학부 학사학위와 함께 학교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 야구부 이동훈(기아타이이거즈) 축구부 최권수(창원시청) 농구부 김 종범(고양오리온스) 동문은 이연택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 경주캠퍼스 1.568명 졸업

경주캠퍼스 봄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1,476명, 석사 35명, 박사 10명, 불교문화대학원 14명, 사회과학대학원 8명, 경영대학원 2명, 의학전문대학원 23명 등 총 1,568명이 졸업했다.

지난 2월18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된 학위수여식에서 수석 졸업은 박서윤(유아교육과), 이사장 공로상은 최정호 총학생회장, 총장 공로상은 홍정완(바이오학부), 김선호(사회체육학과), 권정은(사회복지학과), 국수민(가정교육과)동문 등이 받았다.

### 경주캠퍼스 총장에 이계영 교수 취임



신임 동국대 학교 경주캠퍼 스 총장에 컴 퓨터공학부 이 계영(58·사 진) 교수가 지 난해 10월5일 취임했다.

**♦이계영 경주총장** 2016년 2월

29일까지 경주캠퍼스를 이끌게 된이 총장은 전자계산학과(73/80년) 동문으로 단국대에서 공학박사학 위를 받았으며 경주캠퍼스 전략기획본부장 교무처장 학술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경주캠퍼스는 대학경영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총장에서 총장으로 직제를 높였다.

### ■서울캠퍼스 인사

〈각 대학원장 및 대학장〉

 $\Delta$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정승 석  $\Delta$ 문과대학장 오태석  $\Delta$ 공과대학 장 신재호  $\Delta$ 영상대학원장 이종대  $\Delta$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신 영섭  $\Delta$ 약학대학장 조정숙

〈본부장 및 기관장〉

△전략기획본부장 이학노 △사업개 발본부장 김계현 △운영지원본부장 박상관 △미래인재개발원장 윤성이 △중앙도서관장 계환스님 △평생교육 원장 겸 원격평생교육원장 박경준 △ 교양교육원장 박선형 △동국미디어센 터장 김관규

〈부학장·부속기관장 및 팀실장〉

△불교대학원 부원장 겸 불교대학 부학장 우제선 △공과대학 부학장 박

준영 △과학영재교육원장 김선정 △ 박물관장 정우택 △바이오자원생태농 장장 겸 학술림 관리소장 강호덕 △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홍성조 △불교대 학원・불교대학 학사운영실장 고제선 △국제화추진단 국제교류팀장 원충희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실장 이창학 △연구진흥본부 연구진흥실장 겸 감 사팀장 김범중 △생활협동조합 사무 국장 박군서 △이과대학 학사운영실 장 박승종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 리팀장 박세훈 △교양교육원 학사운 영실장 신하균 △운영지원본부 총무 팀장 김병훈 △영상미디어대학・영상 대학원 학사운영실장 문용주

### ■경주캠퍼스 인사

△운영지원본부장 김영수 △금장생 활관장 박해구

### 1천2백명 운집… 하나되는 동국으로 뜨거운 열기

'동국인의 밤' 성료 십시일반 협찬 성금으로 첫 흑자 행사 기록



▲ 지난해 12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동국인의 밤' 행사는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동문들이 함께 했다.

'하나되는 동국'이란 슬로건 아래 25만 동문이 하나로 뭉쳤다.

'2012 동국인의 밤'행사가 지난해 12월12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이연택 회장을 비롯해 모교 김희옥 총장 및 총동창 회 지부, 지회 소속 동문 1천2백여명 과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 동국가족 한마당 축제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 사에는 혜화전문학교 출신 모임인 혜 동회의 박영민 회장을 비롯한 원로 선배들과 정·재계를 아우르는 동문 들이 고루 참석해 모교의 뿌리 깊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방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연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각각 MBC 대표 아나운서 이재용(84/88수학교육)동문과 대한민국 대표 MC 이경규(79/08연극영화) 동문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 동국인 대상에 공영대 동문

1부 행사는 이재용 동문 사회로 한 해 동안 동국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 스런 동문들과 본회 발전에 기여한 지부(회) 임원들에 대한 축하패 및 공 로패 수여 순서 등을 가졌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에는 공영대(78/82화학) 모교 화학과 교수 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자랑스런 동국인 상'은 사회 부문에 조계종 호계원장이자 생명나눔 본부 이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일면 스님(75/79승가), 봉사 부문에는 개인 장학재단 운영과 후배 장학기금 조성에 앞장선 형종호(56/61법학, 삼공기어공업(주)회장)동문,경제 부문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탄탄한 기업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진식(77/83무역, 심팩(주)회장)동문이

수상했다.

### 동국 연예인상 이경규 동문

'2012 동국을 빛낸 연예인 상'은 이 경규(79/08연극영화) 동문이 차지했다. 이 동문은 SBS '힐링캠프, 즐겁지 아니한가'와 KBS2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만원씩 장학금을 출연해왔다.

### 동국청우상 박종윤 동문

본회 최재구 제7-10대 회장을 기려 '청우 최재구선생 추모사업회'(회장=류주형)가 제정한 '제10회 동국청우상'은 박종윤(56/59경제) 동문이 받았다.



▲ 이연택 회장으로부터 연예인상을 받고 있는 이경규 동문(오른쪽)

###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등 축하패 경찰행정학과 - NH농협 모범지부 시상

이 상은 고현정 동문이 받았었다.

### 해외특별상 김경재 동문

'동국을 빛낸 해외특별상'은 김경재 (65/69농학) 동문에게 수여되었다. 김 동문은 북미주 총동창회장으로서 해 외지부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은 물론 지난 7년간 모교 재학생 후배 150여명 을 미국에 초청, '북미주 해외탐방 연 수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모교에 1천

### 박영석 특별상 윤승철 군

올해 첫 제정된 '제1회 박영석 특별 상'은 재학생인 윤승철(문예창작3) 군 에게 주어졌다. 이 상은 인류 최초 산 악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위대한 산악 인이자 탐험가인 故 박영석(83/91체 교)동문을 기려 제정된 것으로 박영 석탐험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시상했다.

수상자인 윤 군은 금년에 이집트 사하라, 중국 고비, 칠레 아타카마사막

과 남극에 이르는 총 1천km 극지 마라톤에서 최연소 달성 기록을 세웠다.

### 50명에게 축하패-공로패 수여

모범 지부상은 단위 조직 활성화와 장학기금 지급, 회비 납부 등에 적극 적으로 활동한 NH농협동창회(회장= 김성연)와 경찰행정학과 동창회(회장= 임응석)가 수상했다.

### '제2건학'에 한마음 확인

이날 이연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랑스러운 모교를 위해 25만 동문들이하나 되어 제2의 건학을 이루자"고 말했다. 모교 김희옥 총장 또한 축사를통해 "모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연예인 출연 - 행운권 추첨

2부 행사는 이경규 동문이 사회를 맡아 만찬과 연회 행사로 진행됐다.

연회는 송석구 고문(사회통합위원 장)과 박영민 헤동회장(국가원로회의 의장), 사법시험 합격자 최승희 동문 등의 건배 제의로 막을 열었다. 또 연극학과 1, 2학년 학생들의 뮤지컬 갈라쇼, 모교 평생교육원 강사 장진석테너, 모교 행정대학원 G7아카데미 연구실장 가수 선우혜경, 모교 평생교육원 APP과정 재학생인 탈북가수 최금실씨의 축하무대로 동국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행운권 추첨은 이연택 총동회장의 협찬으로 1972년 '동국인의 밤'행사이 래 처음으로 1천만원 상당의 승용차 가 제공돼 많은 동문들의 뜨거운 관 심을 모았다.

# 선후배 한데 어울려 '동국발전'만세 삼창

'동국인 대상'에 모교 공영대 교수… SCI논문 1백여편 발표

### 올해의 동국인 대상 공영대 동문은?



'2012년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수상한 공영대 동문은 화학계에서 주목받는 연구자다. 공 동문은 1959년생으로 1978년 모교화학과에 입학해 1984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 미국 Univ of California, Davis에서 Post-Doc과정을 이수했다. 전공 분야는 유기화

학(조합화학기반 의약화학)이다.

공 동문은 한국화학연구원 신약 기반기술연구센터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모교 화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이과대학 혁신신약 라이브러리연구센터장, 연구진흥 본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최근 3년 간 SCI 논문 게제 22편, 총 SCI 논 문 100편에 달하며,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이 60건이다. 1996년 에는 (주)성보화학과 국산 신농약 1호 KH502를 개발했다. 2009년에 는 미국 렉산 파마슈티컬스에 항 암제 선도물질군 기술이전으로 110만 달러의 이전료를 받기도 했 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지식 경제부 및 제약회사들과의 연구프 로젝트를 통해 130억원을 수주받 기도 했다.

승용차 행운은 이남형(59/63정치)동 문이 차지했으며, 이 동문은 당첨 사 례금으로 308만원을 본회에 기탁했다.

이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참석한 동문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비우지 않고 끝까지 남아 마지막으로 '동국 발전'만세삼창과 교가를 제창하며 1 ■취임/수상=△고용규(70/74정치외교)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하한기(77/84건축)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술자 선정 △이석호(77/84행정) 힐데스하임CC 대표이사사장 취임 △ 이승환(79/83국사) 육군 준장 진급 △강성채(79/83경찰행정)

### 사상 최초 '승용차' 행운상품 나와

### 재학생 갈라쇼 공연 등 축하무대 다채

년후의 재회를 약속했다. 2012 동국인의 밤은 '동국'이란 역사와 전통, 명예로운 이름아래 25만 동문과 모든 동국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한편 이번행사는 이연택 회장 5백만 원, 송석환 수석부회장 1천만원, 민병 덕 국민은행장 1천만원을 비롯 상임 부회장등의 임원 및 동문들의 협찬으로 1천8백여만원의 첫 흑자를 기록, 동국장학회계좌로 이체되었다.

### [동국인의 밤 축하자 명단]

-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공영대 (78/82화학, 동국대학교 화학과 교수)
-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사회부문=일 면스님(75/79승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봉사부문=형종호(56/61법 학, 삼공기어공업(주) 회장) △경제부 문=최진식(77/83무역, 심팩(주) 회장
- ■동국을 빛낸 연예인상=이경규 (79/08연극영화)
- ■동국을 빛낸 특별상=김경재(65/69 농학)
- 동국청우상=박종윤(56/59경제)
- ■박영석 특별상=윤승철(문예창작3)
- 모범지부상=△NH농협동문회(회장 =김성연) △경찰행정학과동창회(회장 =심응석)

경무관(경기 수원남부서장) 승진 △ 이재열(79/86경찰행정)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 승진 △최강주(82/86경찰행정) 광주 교도소장 취임 △김교흥(96/98대학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취임

- ■사법고시 합격=△신유진(94/99법학) △방호근(97/06법학) △황성연(98/03법학) △김상남(04/11법학) △최승희(법학) △석동우(경찰행정3)
- ■입법고시 합격=△황준연(99/07경찰 행정)
- ■행정고시 합격=△반준성(01/09경찰 행정) △이용욱(01/산업시스템공학) △황준연(99/07경찰행정)
- ■공로패=△박오규(62/66경제) △정 환민(65/69농학) △김재응(65/69경영) △정창현(66/74경영) △박대신(69/73 국문) △이용제(71/75화공) △배용만 (72/76체교) △이황(72/08식공) △홍 익표(73/80건축) △화랑스님(74/79승 가) △김선종(74/78체교) △권지관 (75/79경행) △전찬익(75/82농경) △ 이권화(76/83식공) △장태근(77/83무 역) △김기현(79/84국사교육) △박진 령(82/88한의) △이상록(83/90무역) △김병서(85/91사학) △김동일(85/92 경영) △김영곤(87/94국문) △지명스

###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수상자

#### ■사회부문



**일면스님** 생명나눔본부 이사장

■봉사부문



**형 종 호** 삼공기어공업(주) 회장

■경제부문



최 **진 식** 심팩(주) 회장

### 특별상 수상자

#### ■해외특별상



**김 경 재** 북미주동창회장

### ■제10회동국청우상



**박 종 윤** (주)세창 회장

### ■제1회박영석특별상



**윤 승 철** 문예창작 3년



▲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 연극학부 재학생들의 갈라쇼 공연

남(87/89교원) △신철수(88/90교원) △박덕진(90/94법학) △양재국(93/95 불원) △서범수(96/03한의) △하승희 (97/99관광경영) △이기범(01/08국제

통상) △김종수(01/사대원) △최영진 (01/사대원) △박상귀(07/사대원) △ 이상진(10/사대원) △김용헌(11/사대 원)

###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정현 동문 부임

친박계 핵심인사로 인수위 정무팀장 맡기도



이정현(78/85정외)동문이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지난 19일 내 정 발표 되었다.

이 동문은 '박근혜의 입'이라 불 릴 정도로 친박계 핵심인사로 지 난 2004년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시절부터 현재까지 박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대언론 창 구역할을 해왔다.

대통령 인수위 비서실 정무팀장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향후 정무수석을 맡아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와 국회간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제18대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4·11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이번 에 정무수석비서관으로 다시 부활 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이 동문은 전남 곡성 출신으로 '호박 국 대변인'(호남, 박근혜,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 대한산악연맹 회장 3선



이인정(65/72상학, (주)태인 대표이사) 동문이 지난 1월22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사)대한산악연 맹 2013년도 정기총

회에서 제19대 회장으로 재연임됐다. 이 동문은 1998년부터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을 시작으로 2005년 제17대 회 장, 2009년 제18대 회장, 금번 제19대 회장에 오르며 연맹을 이끌고 있다. 임기는 4년이다.

### 경찰공제회 이사장 취임



이성규(74/81경행) 동문이 지난해 12월 14일 경찰공제회 이 사장에 취임했다. 임 기는 2년.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채한철(76/83경행) 동문이 지난해 11월1 일 행정안전부 소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급 상당 별정직 고 위공무원)에 임명됐

다. 경찰청 경비국장, 대구지방경찰청 장, 서울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 울산시 행정 부시장 부임



박성환(74/78농경) 동문이 지난해 9월21 일 울산광역시 행정 부시장에 취임했다. 제28기 행정고시 출 신으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장, 지방분 권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외이사 취임

우태주(66/70경영) 동문이 지난해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 금 융 계 인 사

###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최규연(78/81행정) 동문이 저축은행중앙 회 제16대 회장으로 지난해 10월7일 취임 했다. 임기는 오는 2015년 12월까지다.

최 동문은 행정고시 24회로 기획재 정부 국고국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2011년 3월부 터 지난해 5월까지 제29대 조달청장 을 지냈다.

### NH농협 부행장 승진



이정모(83/87경영) 동문이 지난 1월1일 NH농협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이 동문은 1975년 입사해 기획실, 충남

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 충남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 NH농협 충남본부장 승진



윤동기(80/87회계) 동문이 NH농협 충남 본부장에 올랐다. 1979년 입사해 자금 기획팀장과 강남중앙 지점장, 양재대기업

RM센터장 등을 거쳤다.

### NH농협 강원영업본부장 승진



이윤배(87/91무역)동 문이 NH농협 강원영 업본부장에 승진됐다. 이 동문은 1979년 입 사해 강원본부 교육 지원부장, 리스크관리

단장, 리스크관리부장을 역임했다.

- ▲김장묵(81/87행정)=농협중앙회 상 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 ▲김성연(77/81법학)=NH농협손해보 험 경영지원본부장
- ▲권혁규(81/85무역)=NH농협손해보

### 대통령인수위 취임준비위원장에 김진선 동문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진선(71/74행정)동문이 취임준비위원장으로 지난 1월4일 임명되었다.

취임식은 2월25일이다. 취임준비 위원장을 맡은 김 동문은 대통령 취임사와 취임식 준비 등을 총괄 하게 된다. 김 동문은 평창동계올 림픽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 으며,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 격 이후 강원도 영월 군수, 강릉 시장 등을 거쳐 1998부터 2010년까 지 3번 연속 강원도지사를 지냈다.

### ▶경찰청 치안감급 인사



이상원 동문



신용선 동문



전석종 동문



윤철규 동문



홍익태 동문



장전배 동문



김종양 동문

### 경찰청 보안국장 이상원 동문

이상원77/81경행) 동문이 대전 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청 보안국 장으로 이동했다.

### 강원경찰청장 신용선 동문

신용선(73/77경행) 동문이 강원 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제주 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

### 전남경찰청장 전석종 동문

전석종(77/84경행) 동문이 전남 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경찰청 정보4과장, 서울 혜화경찰서장 등 을 역임하고 지난 2010년 경무관 으로 승진했다.

### 충남경찰청장 윤철규 동문

윤철규(78/85경행) 동문이 충남 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경비단장, 서울청 차장 등을 역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장, 청와대 101

### 전북경찰청장 홍익태 동문

홍익태(78/85경행) 동문이 전북 지방경찰청장에 부임했다.

경찰청 교통관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역임했다.

### 제주경찰청장 장전배 동문

장전배(98/05대학원) 동문이 제 주지방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서울 경찰청 경비부장, 경찰청 경비국 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 경남경찰청장 김종양 동문

김종양(00/04대학원)동문이 경 남지방경찰청장에 취임했다. 행정 고시 특채로 LA경찰주재관, 경찰 청 외사국장 등을 지냈다.

험 서울총국장

▲이명훈(87/94무역)=NH농협손해보 험 소비자보호실장

### KB국민은행 호남본부장 승진



허정수(80/84경제) 동문이 KB국민은행 호남지역본부장으로 승진했다. 1990년 입 행후 서무관리부장, LH지점장, 명동수석

영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훈모(78/86정외)=명동업업부 수

### 석부장

- ▲김병기(80/87법학)=구월동지점 수 석지점장
- ▲정연찬(81/86경영)=서린동기업금융 지점 수석지점장
- ▲김운태(83/90농경)=스타타워기업금 융지점 수석지점장
- ▲안경호(81/85회계)=삼전남지점장
- ▲류 종(84/88법학)=신정네거리역지 점장
- ▲손윤락(84/89경제)=북악지점장
- ▲정광돈(84/88회계)=진접금곡지점장
- ▲진광표(82/86무역)=일산동지점장
- ▲정기훈(78/85경제)=화정지점장

### "나로호가 동국과학을 더욱 빛냈다"

나로호 우주발사 추진단장 조광래 동문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 호(KSLV-I)'가 지난 1월30일 우 주로 날아올랐다.

지난 10년간 나로호 개발사업에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한국항공우 주연구원(KARI) 나로호우주발사추 진단장 조광래(78/82 전자공학) 동 문의 숨은 공로가 빛나는 순간이 었다.

조 동문은 학부뿐만 아니라 모교 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은 토종 동국인이다.

조 동문은 최초의 과학로켓인 '과학 1호', 액체추진과학로켓 (KSR-Ⅲ) 등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과 역사를 같이해 온 한국 우 주개발의 산파로 통한다. 발사체를 쏘는 발사장 건설을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에서 제일 먼저 제안했다.

20년이 넘게 매달려온 나로호 발 사가 성공한 날, 조 동문은 "작으 나마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기쁘 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조 동문은 이번 나로호 발 사 성공을 이끌어 정부로 부터 '과 학기술훈장 창조장'을 받았다.

- ▲박기범(85/89경영)=당동지점장
- ▲임우남(81/85회계)=동탄능동지점장
- ▲김재천(80/84법학)=매교동지점장
- ▲김명원(86/93정관)=동성로지점장
- ▲박동건(83/90경영)=먹골역지점장

###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장 승진



박국근(80/84회계) 동문이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 으로 승진했다. 신용 보험부장, 영등포와 광화문 지점장을 지

- ▲박철오(79/86무역)=강서영업점장
- ▲이철우(79/86전산)=광화문영업점장
- ▲홍성로(80/84무역)=방배영업점장
- ▲홍성호(80/84무역)=창원영업점장

###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내정



한웅수(76/83정외) 동문이 지난 2월23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사 무총장에 내정되었다. 한 동문은 FC서울 전 신인 럭키금성축구단

창단멤버로 1990년 사무국장, 2002년 단장에 취임했으며, FC서울을 K리그 최고 인기구단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 BGF리테일 사장 승진



박재구(76/83식공) 동문이 BGF리테일 대표이사 사장으로 지난 1월1일자로 승

▶ 박 동문은 1992년 BGF에 입사해 개발본부장, 영업본부 장, 총괄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 노루비케미칼 부사장 승진



변정권(77/84회계) 동문이 지난해 12월 25일 노루비그룹의

사장으로 승진했다.

### 용인서부경찰서장으로

이한일(79/86경행) 동문이 지난해 11월 용인서부경찰서장에 부임했다. 경기경찰청 교통과장 등을 지냈다.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지사장에



최현철(79/81토목) 동문이 한국농어촌공 사 진주・산청지사장 으로 지난해 12월1일 취임했다.

최 동문은 경남 고 성 출신으로 1980년 공사에 입사, 32 년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취임



양무승(82/85행원, 투어2000여행 대표) 동문이 제8대 (사)한 국 여 행 업 협 회 (KATA) 회장으로 지 난 1월1일 취임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내외국인 여행자 에 대한 여행업무 개선 및 서비스 향 상 도모, 여행사 권익을 대변하는 여 행사업자단체다.

### '올해의 CEO 대상'수상



강태선(07/09경원, 블랙야크 회장) 동문 이 지난해 12월 00일 한국마케팅학회가 수 여하는 '올해의 CEO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창조적인 마케팅 경영으로 기업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경영자에 게 주어진다. 강 동문은 아웃도어용품 업체인 블랙야크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인 점이 평가를 받았다.

### '대한민국 미술대전'특선

김선희(87/91미술) 동문이 지난해 플라스틱용 도료 전 10월31일 한국미술협회가 발표한 제31 문 계열사인 노루비 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전통공예부문에 ■ 케미칼 대표이사 부 서 작품 '보살도'로 특선을 차지했다.

### 인천 공항서 본회 직행한 재미 교포 한영각 동문 오근옥 동문 "모교 졸업장으로 30년 직장 생활"





• **한영각**(57/61국문, 뉴욕 순복음 제일교회 목사) 동문이 박근혜대통 령 취임식에 참석차 지난 2월19일 내한,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본회에 들러 연회비 5년분과 동창회관 건 립기금 2백만원을 기탁했다. 37년전 미국으로 건너간 한 동문은 "동창 회보와 뉴욕동문회 등을 통해 모교 를 늘 그리워했는데, 더 늦기전에 동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 **오근옥**(74/78회계, 신용보증기 금) 동문이 장학기금으로 지난해 12월3일 1백만원을 기탁했다. 오 동 문은 "동국대 졸업장을 가지고 30 년동안 직장생활을 한 만큼 동국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는 당연하다"면 서 "다른 동문들도 한번 쯤은 모교 에 대해 애정표시가 있었으면 좋겠 다"고 덧붙였다.

### 동국문학 2013년도 신춘문예 6명 데뷔

소설부문 2명. 평론 부분 4명 각각 당선



(조선일보 평론)

시 입증해 보였다.



(동아일보 단편소설)

올해 신춘문예에서 6명의 당선자 를 배출, 동국문학의 저력을 또 다

지난 1월1일과 2일 발표된 중앙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발표에서

△동아일보 단편소설 부분=송지현

(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한국

경제 장편소설 부문=최지운(문예

창작학과 졸업) △동아일보 문학

평론 부문=임세화 (대학원 국문학

과 석사과정) △조선일보 문학평

론 부문=이선희(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 석사과정) △서울신문

문학평론 부문=유인혁(대학원 국

문과 박사과정 수료) △세계일보

문학평론 부문=기 혁(대학원 국문

과 석사과정 재학) 등 모두 6명이

특히 이번 신춘문예에서는 소설 과 평론 부분에서의 강세가 두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임세화 동문

유인혁 동문 (서울신문 평론)

(동아일보 평론)

기 혁 동문 (세계일보 평론)



최지운 동문 (한국경제 장편소설)

러졌다.

매년 신춘문예마다 뛰어난 문재 (文才)들을 배출해 내며 명실상부 한 최고의 문학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국문학은 200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 사 신춘문예에서 총 8명의 당선자 를 배출한 바 있으며 2010년 3명, 2011년 4명, 2012년 4명의 동문이 등단하는 등 매년 '동국문학 파워' 를 보여주고 있다.

#### 신 간 안 내

#### | 생노병사 그리고 주색끼 사랑 | 김 영 준 (66/70행정)

40여년의 직장생활 경험에 생로병사와 주색잡기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들을 맛깔스럽게 버무렸다. 금융전문가임에도 평범한 머슴 출신 하민(下 民)을 자처하는 저자는 생활속의 잡학들을 걸쭉한 필담으로 풀어냈다.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에서 인생의 방향과 의문뿐 아니라 주색 끼에 대한 예찬도 담고 있다.

### | 불교다례 |

적연스님 (불교대학원)

이 책은 사찰의 여러 공양중 하나이면서 부처님께 다가가는 수행법인 차 명상과 다례의 기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차 이야기, 차에 담긴 정신, 차의 벗 다구, 차인의 멋 다례, 부처님과 차, 내 마음을 보는 차 명상, 한 국불교의 차인들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 2012년 동국인의 밤 협찬금을 보내주신 분 (금액·성명가나다순)



이연택 총동창회장 500 만원



송석환(64/68농경) 1,000 만원



민병덕(74/81경영) 1,000 만원

#### 동국대학교



정련스님 법인이사장 금일봉



성타스님 법인이사 금일봉



영담스님 법인이사 금일봉



금일봉

김희옥 동국대총장 이계영 경주캠총장

### 금일봉



형종호 (56/61법학) 김재기 (56/60경제) 300 만원



100 만원



박종윤 (56/59경제) 100 만원



100 만원



부회장 外

송석구 (58/62철학) 김오현 상임부회장 300 만원



김진문 상임부회장 300 만원



박동열 <sub>상임부회장</sub> 300 만원



서영준 상임부회장 300 만원



연기영 상임부회장 300 만원



차준은 <sub>부회장</sub> 300 만원



한우삼 상임부회장 300 만원



구자선 부회장 200 만원



김화배 상임부회장 200 만원



이종찬 특별회원 200 만원



고용규 상임부회장 100 만원



김기유 특별회원 100 만원



김석만 상임부회장 100 만원



김진억 상임부회장 100 만원



나경미 상임부회장 100 만원



박광성 상임부회장 100 만원



박상호 상임부회장 100 만원



법타스님 상임부회장 100 만원



송일호 부회장 100 만원



이인정 상임부회장 100 만원



이재형 <sub>상임부회장</sub> 100 만원



전영화 상임부회장 100 만원



전종무 상임부회장 100 만원



최종윤 상임부회장 100 만원



경주직할지부 회장 박병훈 200 만원



국민은행지회 회장 정훈모 200 만원



건축공학과 회장유종칠 100 만원



경영학과 회장 김철순 100 만원



경제학과 회장 한영휘 100 만원



광주지부 회장유수택 100 만원



교육학과 회장 강창호 100 만원



농협동우회 회장 김성연 100 만원



문화예술대학원 회장 양용호 100 만원



법학과 회장 김용길 100 만원



여자동창회 회장 김영순 100 만원



영어영문학과 회장 허창식 100 만원



인천지부 회장 이환섭 100 만원



화학과 회장유국현 100 만원



81학번 동기회 회장전종무 100 만원

### ■ 2012년 동국인의 밤 협찬금을 보내주신 분

- ■80만원=△안채란(48/54국문)
- ■50만원=△김용구 수원지부 회장 △김유명 사 회학과 회장 △박상규 지도위원 △김희수 (00/01사대원) △박삼선(51/55법학) △박상규 (59/61국문) △불교대학원동창회 △성해스님 교
- 육대학원 동창회장
- ■40만원=△윤일균(67/69행원) ■30만원=△경하현성스님(72/73행원) △국세 청동우회 △김보열(57/62경제) △노준식 (58/62정치) △류근창(46/50문학 △윤용숙
- (93/95불원) ■20만원=△행정학과동창회=23만원 △김재경 (57/61경제) △김종규(58/64경제) △법운스님 (95/97불원) △성담스님(03/05불원) △이종현 (86/90국문) △조희영(59/63경영) △최용환 (64/67농학) △현각스님(78/82인철)
- (60/64임학) △정동진(65/69국문) △정춘덕 (55/60법학) △정호경(95/97불원) △조규영 한기(77/84건축) △홍형덕(49/53정치)
- ■7만원=△조창원(55/57경제)
- ■5만원=△강신조(09/12불교) △김광복(94/97 (58/61경제) 행원) △김부동(88/90교원) △김상종(62/66농 ■1만원=△박인동(79/86사회)

- 경) △김영봉(53/57농학) △박준호(83/87회계) △심규선(61/63물리) △오선호(84/88영문) △ 윤천식(64/69경제) △이영길(99/01행원) △이 윤철(88/95경영) △조홍기(58/63영문) △최규 철(60/66정치) △최세화(48/56국문) △최승도 (65/69상학) △최인규(79/86통계) △하혜순 (92/94불원) △학산스님(07/08불문원)
- ■3만원=△권태상(77/81국교) △김용성(93/99 교육) △김용흥(64/75경행) △김재문(60/62법 학) △배주환(77/79전기) △신범철(55/62물리) △신영철(57/61국문) △염동훈(58/64법학) △ 이장걸(56/62사학) △정민용(47/49문학) △정 상훈(96/03법학) △죽림정사 △철은스님 (86/88교원) △한인만(64/72국문) △홍기표 (58/64정치)
- ■2만원=△김병시(73/74행원) △김상기(94/96 ■10만원=△박수철(53/57임학) △박은규 불원) △김홍원(99/07경행) △남금광(63/69상 (59/61정치) △안종진(51/59영문) △원경스님 학) △덕현스님(89/93북교) △박광태(61/63국 (95/96불원) △이경구(58/65법학) △이맹우 문) △박영희(89/91경원) △변봉현(67/71자동 (91/93불원) △이점구(96/99산원) △이택수 제어) △손병성(80/87화학) △송기훈(65/71경 (66/70경제) △이희경(68/75경행) △전진표 제) △유두상(70/74경제) △유영근(90/92경원) △이경우(58/64경제) △이승헌(59/63정치) △ 이시우(61/03정치) △이재항(64/71경제) △장 (64/08경제) △조병권(85/88경원) △조정곤 석율(70/76식공) △정태수(69/71법학) △조한 (59/62법학) △지종스님(07/11한국음악) △하 운(61/65상학) △채수일(57/61정치 △청운스님 (93/95불원) △최흥길(58/62경제) △하정열 (01/03행원 )△한경원(49/52경제) △한도수

### ■ 협찬 물품을 보내주신 분

- △이계영 경주캠퍼스 총장=TV 1대
- △김만식 몽고식품그룹 회장=간장선물 300세트 △서정호 앰배서더호텔그룹 회장=뷔페권 8매,
- 카렌다 150부 △오정석 경기남부주류협회 회장=소주 200병.
- 맥주 500병 △ROTC총동문회(회장=김영환) 장태근 JL스포 츠 대표=피트니스 1년 회원권(골프레슨 포
- 함)5매, 피부관리 시술권 4매 △경찰행정학과 동문회(회장=심응석)=생명현미 건강식품 20세트
- △이희봉 히말라야갤러리 대표=침향108염주2점 △정광시 국제검정공사 부장=운동복 5벌 △손창수 대구경북동창회장=공진단 1세트
- △이철우 신용보증기금 동창회장=여성용 고급 화장품 1세트
- △안형모 통계학과 동창회장=고려은단 비타민C 10세트 △김병호 고양시 동창회장=고급 커피(가요 마운
- 틴) 3세트 △김문영 경기섬유산업(주) 대표이사=한지 침대
- 커버 1세트 △차연신 (주)인투루프랜드 대표이사=태반 2종 크림 5세트, 기능성 세럼 30개, 영양 마스크 팩 300개

인터넷을 통해 東四大同定會報 를 더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www. dongguk.or.kr

네이버 검색창에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를 쳐보세요

· 각종 모임, 동정등을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dengguka@naver.cem)과, facebeek(동국대 동창회)도 동문들의 소통공간입니다.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 각종회비 납부안내

- 외환은행 150-22-01536-0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 예 금 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12년 9월 26일 ~ 2012년 12월 31일 접수분〉

#### 고문 분담금







형 종 호 (56법학) 7



고성대 (55법학)



고용규 (70정의) 김대욱 (65경영)





김 재 경 (57경제)



김충남 (66행정)



김 환 배 (68연료) 라동영 (59불교) 문 100만원 부회장 100만원



금액 · 성명 가나다순

문 황 진



(67행정)



박재호 (83연영) 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박종희 (83회계)



박 희 창 (66경영) 서 문 양 (95경원) 심산스님 (82선학) 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암도스님** (68불교)



양용호 (04분원) 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류지선(72행정)

▲류현욱(71식공)

▲류혜숙(72사교)

▲마경석(89경행)

▲문재연(79일문)

▲민창동(77대학원)

▲박대석(68경영)

▲박성호(82사학)

▲박승훈(78<del>농</del>생)

▲박영길(89산공)

▲박준근(08행원)

▲문계술(88불교아동)

▲무학사

▲문수사



연 기 영 이 상 윤(93대학원) (71법학) 부회장 100 **만원** 



이 은 갑 (62경영) 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10

▲박형봉(70전자)

▲배성인(78경행)

▲배용만(72체교)

▲백용운(86수교)

▲손근익(77건축)

▲손양호(70불교)

▲송재천(62정외)

▲신쾌호(57법학)

▲안병민(69도공)

▲안정호(86경행)

▲양재인(64정외)

▲어윤소(65경제)

▲염동락(75국교)

▲오병진(84건축)

▲오세찬(82화학)

▲오필성(76<del>농</del>경)

▲우성용(64경영)

▲원현기(64임학)

▲유재석(64행정)

▲유종희(61**농**경)

▲유진봉(74도행)

▲윤광춘(74경행)

▲윤동길(73경행)

▲선우명자(66사학)

▲김재응(65경영)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김동준(80경영)

▲김문환

▲김명호(61식공)

▲김범동(92무역)

▲김병두(67경제)

▲김상구(74경영)

▲김석중(02대학원)



이 재 창 (100경영) 이 창 규 (62경영) 이 희 봉 (99불원) 장 장 순 (58법학) 전 영 화 (65경행) 전 종 무 (81미술) 정산스님 (88선학) 채 정 욱 (86의학) 한 강 택 (72경행)

2

2

2

2

2

2



▲신영철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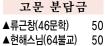
2

2

2



홍순직 (66경영) 홍파스님 (63불교)



지도위원 회비 ▲권오갑(62<del>농</del>경) ▲권혁조(62정외) ▲김교근(59경영) 30 ▲김남수(57법학) 30 ▲김완식(64농학) 30 ▲김종옥(59철학) 30 ▲김한주(67대학원) 30 ▲김해근(60임학) ▲마경자(49국문) 30 ▲박삼선(51법학) 30 ▲박충환(55경제) 30 ▲박태권(71정외) 30 ▲변태원(59법학) ▲심재익(59농학) ▲오진모(57법학) ▲유대진(60상학)

30 30 ▲윤청광(59영문) 30 ▲윤형두(55법학) 30 ▲인중식(53경제) 30 ▲장용철(60농학) ▲정동귀(57정치) 30 ▲최수길(60국문) 30 ▲최윤식(57경제) 30 ▲허길남(63응생) 30

### 부회장 회비 ▲김봉주(76행원)

**▲혜총스님(69불교)** 

### 상임이사 회비

▲강성윤(63행정) ▲고천석(76정외) 20 ▲권수구(75국문) 20 ▲김남선(67통계) 20 ▲김문기(67임학) 20 ▲김병은(92행원) 20 ▲김상겸(77법학) 20 ▲김상규(69경영) 20 ▲김상래(78경영) 20 ▲김석희(57법학) 20 ▲김선정(72행정) 20 ▲김승기(69경영) 20 ▲김용진(69경행) 20 ▲김용표(69불교) 20 ▲김진택(73농생) ▲김철규(84경원) ▲남만우(01사대원) ▲노덕일(61농경) ▲노창현(66<del>농</del>학) ▲류복수(95사대원) ▲박봉전(99사대원) ▲박성훈(69경행) ▲박오영(72정외) ▲박종세(92경영) ▲박진령(82한의) ▲백우현(66화학) ▲백인석(83국문) ▲손연칠(71미술) ▲신흥래(78국문) ▲안명근(65농학) ▲양병호(60영문) ▲어재식(68상학) ▲유원표(75통계) ▲윤용건(77회계) ▲윤흥섭(60경영) ▲이승영(64상학) ▲이영안(65경영) ▲이우정(73정외) ▲이운구(81미술)

▲이원희(86경영) ▲이재환(98사대원) 20 ▲자성스님(92사대원) 20 ▲장송모(75경원) ▲정우식(88철학) ▲정지천(79한의) ▲지수구(57경제) ▲허창식(75영문) ▲홍준기(91무역) ▲황동휘(79행정)

▲황부호(97행원) 이사 회비

▲강전희(74경제) ▲강태선(07경원) 10 ▲고경찬(80경제) 10 ▲고기복(93법학) 10 ▲김경숙(77가교) 10 ▲김경훈(86법학) 10 ▲김광호(80회계)

▲김병우(65응생)

▲김수웅(64경제)

▲김영희(71식공)

▲윤용식(77국사교육) 20 ▲윤재수(00사대원) ▲이경순(58법학) ▲이경철(71법학) ▲이권하(76식공) ▲이길수(79정외) ▲이문호(72임학) ▲이상기(67상학) ▲이상칠(79사회) ▲이영호(75전자) ▲이인진(60법학) 10 ▲이재국(81건축) ▲김기황(68위생공학) 10 ▲이재영(74경행) 10 ▲이정길(59경제) 10

▲이천기(64농경)

20 ▲김종규(84행정) ▲이태영(51사학) 10 ▲김종형(81경영) ▲이헌호(69공업경영) 10 ▲이호영(92사대원) ▲김주작(61철학) 10 ▲김희중(85경행) ▲이흥규(59경제) ▲류제복(74통계) ▲장정균(90경행) ▲민해(74국교) 10 ▲정경호(64<del>농</del>학) ▲정경훈(82경영) ▲박상국(69불교) 10 ▲박상귀(07사대원) 10 ▲정동석(81체교) ▲정민용(47문학) ▲박영호(64경행) 10 ▲박용하(77정외) ▲정민용(47문학) ▲박윤석(83법학)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정하성(67상학) ▲조명일(81사교) ▲조승철(53농학) ▲조항태(59법학) ▲최순희(76수교) ▲최창영(61법학) ▲학산스님(07불문원) 10 ▲한법균(79행정)

▲한상림(01언원) ▲한창화(05사대원) ▲허 원(81사회)

### 일반회비

10 ▲각원사 10 ▲강맹진(97대학원) 10 ▲강민구(73공업경영) 10 ▲강윤숙(77국교) ▲강정훈 ▲강중식(57수학) 10 ▲계룡사 10 ▲고선원(67상학) 10 ▲고옥자(79영문) 10 ▲공영대(78화학) ▲곽영진(87경행) 10 ▲곽종학(57국문) 10 ▲과은사 10 ▲관음사 10 ▲권병학(77물리) 10 ▲권오춘(59영문) 10 ▲권진우(70전기) ▲권혁찬(08경영) 10 ▲금산사 10 ▲금용사 10 ▲김광영(59경영) 10 ▲김교남(61불교) 10 ▲김기성(67식공) 10 ▲김남근(65상학)

▲김덕조(85무역)

▲김선두(83경행) ▲김선우(82전기) ▲김성윤(84영문) 2 ▲김순태(49경제) ▲김승진 10 ▲김영전(84경제) 2 ▲김용범(65통계) 2 ▲김용선(89회계) ▲김용설(90화학) 2 ▲김윤회(89행원) ▲김의창(79수학) 10 ▲김익수(69구축공학) ▲김재완(92인철) ▲김재호(70경행) ▲김정길(62<del>농</del>경) ▲김정의(61경영) ▲김종민(80회계) ▲김종위(89경제) ▲ 김준수(85식공) ▲김진자(92불교아동) ▲김창재(77통계) ▲김춘수

▲동명사

▲류경선(96경원)

▲류광호(76농생)

▲류영연(71국교)

▲박준호(83회계) ▲박중동(00행원) 2 2 2 2 2 10 ▲김태성(59물리) 2 ▲김한진(64상학) 2 ▲김현택(97북한) ▲김형민(70경행) ▲김환규(60정치) 2 ▲김효수(83경제) ▲김희영(70수학) ▲나성규(61상학) 2 ▲남기화(67영문) ▲남윤희(56국문) ▲노완섭(61식공) 2 ▲대각사 ▲도갑사 2 ▲도덕암 2 ▲도상열(54수학) 2 ▲도윤호(90행원) 10 ▲동명사

▲보덕사 ▲보문사 ▲불사리탑사 ▲불주사 ▲붓다사 ▲사리암 ▲상원사 ▲서병철(79경제) ▲서정록(68수학) ▲선덕사 ▲선운사 ▲소두영(81경영) ▲손병성(80화학) ▲손종호(82무역) ▲송군재(71화학) ▲송기붕(74국교) ▲송병욱(67인철) ▲송성환(66경제) ▲송인재(88사회) 2 ▲수선정사 2 ▲수원사 2 ▲수월암

2

▲박지원(56경제) ▲박호근(74무역) ▲반야선원 ▲반용사 ▲방영길(77전산) ▲배영섭(05체교) ▲백길웅(85인철) ▲백련사 ▲백운사 ▲변대룡(80인철) ▲승가사

2 ▲안재열(64상학) ▲박정민(79불교미술) 2 **▲**안흥수(70공업경영) ▲약산사 2 ▲약수선원 ▲양희철(73경영) ▲어관무(69경제) 2 2 ▲어성선(78경영) ▲연화사 ▲염불사 2 ▲염진(65사학) ▲영안스님(00행원) 2 ▲영화사 2 ▲오성운(83정외) 2 ▲오양균(81법학) ▲용문사 ▲용화사 ▲우인보(81불교) ▲운문사 2 2 ▲원명사 ▲월성사 ▲월철스님 ▲유기봉(73<del>농</del>학) ▲유동근(84경제) ▲유동식(73식공) 2 ▲유성모(85전자) ▲유중곤(78행정) ▲유지남(70농학) ▲윤구식(07교원) ▲윤영(77건축) ▲윤오섭(74화학) 2 2 ▲윤재민(81사학) ▲윤재성(61식공) ▲윤희병(78경원) ▲은해사 ▲이관(90의학) ▲이관수(78경영) 2

2

▲이근수(98북한)

▲이낙호(92행원)

2 ▲이동원(78회계) ▲신영태(81무역) 2 ▲신재현(58영문) 2 ▲이면규(81무역) ▲신현달(80무역) 2 ▲이병길(67화학) ▲심경용(67법학) ▲이상길(89영문) ▲심광보(58물리) 2 ▲이상우 ▲이상현(58법학) ▲심규선(61물리) 2 ▲심복사 ▲이성복(74회계) ▲심상무(64농학) ▲이성호(68화학) 2 ▲심재호(83법학) 2 ▲이연신(69철학) ▲안병헌(93경영) ▲이영규(73수학) ▲안순한(66상학) 2 ▲이영두(76경행) 2 ▲이옥동(82영문) 2 ▲이용성(73법학) ▲이용식(60농학) 2 ▲이운길(76경행) 2 ▲이원섭 2 ▲이유옥(92행원) 2 ▲이윤철(88경영) ▲이재우(08교원) 2 ▲이재원(58법학) 2 ▲이재창(51경제) ▲이재형(79임학) 2 ▲이점원(72미술) 2 ▲이정진(81건축) 2 ▲이종대(77무역) ▲이종복(55불교) 2 ▲이종심(85회계) 2 ▲이종인(03대학원) 2 ▲이종천(84통계) 2 ▲이진욱(93법학) ▲이춘아(77가교) ▲이충환(71통계) 2 ▲이태형(86물리) ▲이해석(79화학) ▲이홍윤(82회계) 2 ▲임만혁(76정외) 2 ▲임병술(81전산)

2

2

2

2

2

2

2

2

2

▲임애란(82가교)

▲임우택(82경영)

▲임윤승(81법학)

▲임인규(78승가)

▲임채호(82전산)

▲장영권(47경제)

▲장영상(66식공)

▲장현성(98물리)

▲전상윤(89회계)

▲전수식(56법학)

▲자비사

▲장안사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2

2

▲전익흥(85법학) ▲정강대(81법학) ▲정강훈(77공업경영)	2 2 2	▲정시환(87법학) ▲정용일(70법학) ▲정의복(86경행)	2 2 2	▲조종미(83지교) ▲조한구(67상학) ▲지석규(84전자)	2 2 2	▲최낙복(78수교) ▲최덕규(79무역) ▲최병연(86전기)	2 2 2	▲최은기(82독문) ▲최익환(78건축) ▲최종완(61법학)	2 2 2	▲표종섭(85고고미술) ▲학도암 ▲한권규(82건축)	2 2 2	▲현순자(64국문) ▲혜은사 ▲호영송(62연영)	2 2 2	▲홍영준(61경제) ▲홍태환(81사회) ▲화엄사	2 2 2
▲정대진(79회계)	2	▲정제용(88법학)	2	▲지용진(82경행)	2	▲최선덕(89경제)	2	▲최창경(81회계)	2	▲한병선	2	▲홍경식(80행정)	2	▲황규환(94행원)	5
▲정동수(61화학)	2	▲정창숙(94교원)	2	▲진흥사	2	▲최성덕	2	▲최창호(74전산)	2	▲한성일(94법학)	2	▲홍기영(76화공)	2	▲황해룡(82국교)	2
▲정동원(90회계)	2	▲정현종(67농경)	2	▲천안사	2	▲최송호(83무역)	2	▲최철수(69무역)	2	▲한정섭(61불교)	2	▲홍범석(90회계)	2	▲회광선원	2
▲정상동(79경제)	2	▲정희장(70무역)	2	▲청림사	2	▲최수경(95한의)	2	▲최홍규(61연극)	2	▲한진수(80공업경영)	2	▲홍법사	2		
▲정석숭(59상학)	2	▲조만정(64식공)	2	▲최경봉(57물리)	2	▲최수영(73행원)	2	▲최희규(90생물)	2	▲향천사	2	▲홍순평(63상학)	2		
▲정승민(64경제)	2	▲조운행(90법학)	2	▲최근수(93산원)	2	▲최영수(77사학)	2	▲칠장사	2	▲허환(58경제)	2	▲홍승하(70농학)	2		

### 〈2013년 1월 1일 ~ 2013년 2월 24일 접수분〉

### 부회장

금액 · 성명 가나다순























김삼철 (63농학) 김재경 (57경제) 김진하 (71무역) 나경미 (70정의) 서정호 (71경영) 선묵혜자스님(96불원) 심산스님 (82선학) 윤부성 (61생물) 이기흥 (12불원) 이상현 (54경제) 이승성 (76제교) 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감 사

이화일 (61상학) 일면스님 (75승가) 정산스님 (88선학) 조은구 (64경제) 주호영 (10불원) 차민수 (69경제) 최진식 (77부역) 한우삼 (63농학) 허수창 (08불원) 홍순직 (66경영) 이홍섭 (80회계) 부회장 100 만원 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부회장 100 만원 가회장 100 만원 기회장 100 만원 기정 100 만원 기정

발전기금

지도위원 회비

▲경하현성스님(72행원) 30

▲김관수(63행정)

▲김성강(60법학)

▲김용길(61법학)

▲김유광(57영문)

▲김종규(58경제)

▲김흥우(60연극)

▲문효치(62국문)

▲박상규(59국문)

▲박수철(53임학)

▲윤천영(59<del>농</del>학)

▲이능희(60상학)

▲정대진(59법학)



지도위원 100만원 부회장

경하현성스님(72행원)	류수택 (60경영)
기도이의 100마위	보하자 100마위

100만원	
▲정동귀(57정치) ▲최병식(59불교)	30 30
부회장 회비 ▲정동진(65국문)	30
상임이사 회비	1
▲김래동(80행원) ▲김병은(92행원)	20 20

30			▲장성호(99사디
••	부회장 회비	]	▲장수철(97사대
30	▲정동진(65국문)	30	▲장세균(67철학
30	-00 L(00 1L)	•	O—(
30	가시하다 하다	1	▲정병립(84행원
30	상임이사 회	비	▲정사균(95사다
30	▲김래동(80행원)	20	▲진각스님(88한
30	▲김병은(92행원)	20	▲최평규(96 <del>불</del> 원
30	▲김진방(64경제)	20	▲황경환(87교원
30	▲김창기(95경원)	20	
30	▲김학진(66 <u>농</u> 경)	20	이사 호
30	▲노재환(08불원)	20	▲강희석(97호털
30	▲류복수(95사대원)	20	▲구자근(86법호
00	-11 11 (00 1 112)		-1 12(002

▲박학도(69무역) ▲법운스님(95불원) ▲법현스님(80승가) ▲안병창(59상학) ▲오수환(84법학) ▲요용숙(93불원) ▲이명주(55정치) ▲이수환(91불원) ▲이종우(97대학원) ▲이총된(99불권) ▲이학송(78불교) ▲장봉헌(68경행) ▲장성호(99사대원) ▲장사교(67철학) ▲장서교(67철학) ▲정서교(95사대원) ▲정시교(95사대원) ▲정시교(95사대원) ▲정시교(95사대원)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왕경완(७/교권)	20
તો તો સો હો	
이사 회비	
▲강희석(97호텔경영)	10

변 변 변 변 변 변 변 변 변 변 변 변 변 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구학모(90행원) ▲국기일(58경제) ▲권홍표(74식공) ▲김기황(68위생) ▲김등실(93경원) ▲김등号(83사회) ▲김막석(673경행) ▲김우착(65불교) ▲김완규(63농학) ▲김인순(80경원) ▲김인순(80경원) ▲김진길(72행정) ▲김진길(72행정) ▲김진길(73청행) ▲대정환(56국문) ▲김진길(76정외) ▲대경환(63상학) ▲민병휘(63상학) ▲민병휘(63상학) ▲만병취(63상학) ▲박망군(71건축) ▲박망군(64국문) ▲박왕단(64국문) ▲박하당(62경행) ▲배충남(62강학)
-00	. •	
<u>(†</u>	10	▲매중립(62성익)

10	▲신형철(77체교)	10
10	▲양승조(59경제)	10
10	▲오선호(84영문)	10
10	▲유병돈(73공업경영)	10
10	▲유연상(85경행)	10
10	▲이경철(71법학)	10
10	▲이덕기(76국교)	10
10	▲이장화(84무역)	10
10	▲이창억(49정치)	10
10	▲이한우(81교원)	10
10	▲임경호(70전자)	10
10	▲전진표(60임학)	10
10	▲전찬우(84화학)	10
10	▲정동석(81체교)	10
10	▲조석규(68도시공학)	10
10	▲조수길(87법학)	10
10	▲조원상(74전자)	10
10	▲조정곤(59법학)	10
10	▲진동화(82경행)	10
10	▲진성스님(04불원)	10
10	▲최지섭(69경제)	10
10	▲하진수(61정치)	10
10	▲한경구(61임학)	10
10	▲한대현(89경원)	10
10	▲한성규(65물리)	10

신형철(77체교)	10	▲허남태(80환경조경)	10
양승조(59경제)	10	▲홍성하(65응생)	10
오선호(84영문)	10	일반회비	
유병돈(73공업경영)	10	▲김경수(69행정)	2
유연상(85경행)	10	▲김종택(96경원)	2
이경철(71법학)	10	▲김진(89선학)	2
이덕기(76국교)	10		
기장화(84무역)	10	▲동명사	2
기창억(49정치)	10	▲무학사	2
기한우(81교원)	10	▲박완성(83전산)	2
임경호(70전자)	10	▲박인동(79사회)	2
전진표(60임학)	10	▲박정후(02경영)	2
전찬우(84화학)	10	▲박훈(73경원)	3
정동석(81체교)	10	▲우승원(94무역)	2
조석규(68도시공학)	10	▲윤재민(81사학)	2
조수길(87법학)	10	▲이건웅(60경제)	2
조원상(74전자)	10	▲이정수(64영문)	2
조정곤(59법학)	10	▲이창희(75농학)	2
진동화(82경행)	10	▲정병렬(84법학)	2
진성스님(04불원)	10	▲최정식(85행원)	4
최지섭(69경제)	10	▲한영각(58국문)	10
하진수(61정치)	10	-1 -1 -1	
한경구(61임학)	10	장학금	
하대현(89경원)	10	▲이인진(60법학)	5

▲김경수(69행정)
▲김종택(96경원)
▲김진(89선학)
▲동명사
▲무학사
▲박완성(83전산)
▲박인동(79사회)
▲박정후(02경영)
▲박훈(73경원)
▲우승원(94무역)
▲윤재민(81사학)
▲이건웅(60경제)
▲이정수(64영문)
▲이창희(75 <del>농</del> 학)
▲정병렬(84법학)
▲최정식(85행원)
▲한영각(58국문)
,
장학금

2	50만×4회(누계:350만원	)
2	▲임영수(71무역)	20
2	5만×4회(누계:35만원)	
	▲이주영(80경원)	6
2	2만×3회(누계:6만원)	Ū
3	▲강태원(69물리)	1
2		- 1
2	(누계:3만원)	
2	기위에 기	
2	장학기금	
2	▲김명길(70공업경영)	20
2	5만×4회(누계:75만원)	
4	▲김철완(88법학)	40
	10만×4회(누계:150만원)	
10	▲민현호(82영문)	8
	(020년) 2만×4회(누계:8만원)	Ŭ
5	▲박상신(79화학)	4
	1미니 / 1위/ 느 게 : 시미니의/	

▲박웅규(05건축)

발전기금		1만×3회(누계:3만원) ▲ 소개층(00경제)	4
▲김일근(05경원)	38	▲송재훈(98경제) 2만×2회(누계:4만원)	4
CMS 이체		▲안한상(66국문)	4
		1만×4회(누계:15만원)	
동창회관건립기	금	▲이종근(71물리)	6
▲박종윤(56경제) 2	200	2만×3회(누계:6만원)	
50만×4회(누계:350만원	)	▲한인만(64국문)	4
▲임영수(71무역)	20	2만×2회(누계:4만원)	
5만×4회(누계:35만원)		▲현융기(81행정)	40
▲이주영(80경원)	6	10만×4회(누계:40만원)	

#### 부회장 회비 ▲김영순(65화학) 20 (누계:220만원) 이사 회비

### ▲나채문(99산원) 3 1만×3회(누계:11만원) ▲최철호(86산공) 1만×4회(누계:4만원)

#### 평생회비 ▲이은종(63상학) 8 3 2만×4회(누계:30만원)